

잡지 《학원》을 만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3

김병익 | 문학평론가

“장난꾸러기에서 조용한 모범생으로 바뀌는 고등학생이 된 후 나도 뒤늦게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야>라는, 처절한 감상으로 얼룩진 시 한편을 《학원》에 투고했더랬는데, 김용호 선생이 그걸 입선작으로 뽑아 실어줬다. 그 시 덕분에 고3 때는 학생 시인 품을 잡아 또래의 문학소년들과 공중 앞에서 시 낭독회도 갖고 지방지에 발표도 했던 것 같다. 그 한두 해가 나의 짧디짧은, 그리고 볼품없이 유일한, ‘시인’ 시절이었다.”

국가고시를 치르고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6·25 전쟁이 한참 치열하던 1951년 9월이었다. 대전중학교의 교사는 거기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일으킨 화재로 없어지고 우리는 기숙사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한 학년 8개반, 한 반이 80명으로 콩나물 교실인데다가 책걸상이 없어 화판을 놓고 공부해야 했고 선생님들 중에는 피난왔다 임용돼 수업준비가 덜 된 분도 있었고 더러는 갑자기 입대하거나 이직해서 뒷소식을 모른 채 담당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는 등 분위기까지 어수선한 편이었다.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교사가 군에 징발돼 보문산 골짜기와 충남도청의 허드레건물에서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한 교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또 한창 장난치며 자랄 때여서 불비한 교실과 교육환경에 불만이 있을 수도 없었다. 중2 때는 정전반대 시위에 동원돼 우리는 걸핏하면 구호를 외치며 시내행진을 해야 했고 그 더위와 피곤에 지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데 사람이 걸으면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다.

전쟁과 피난 생활로 모두가 가난하며 힘들고, 약삭같으면서도 피로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끈질겼던 시절 우리 집도 역시 그랬다. 장교로 입대한 큰형님은 내가 중3에 오를 때 전방에서 대

위로 전사했고 작은형님은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있어 집안 분위기는 아주 달라져 버렸다. 부모님은 불타 폐허가 된 도심지의 우리 집터에 바라크를 짓고 생과자집을 경영해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어울리며 형제들이 책을 볼 수 있었던 평온하고 조용한 가정은 더 이상 아니었다. 나도 그 나이답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해서 수업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 중에도 친구들과 공치기며 씨름하기로 어찌나 힘을 썼는지 교실에 들어오면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였다. 곤충 채집을 핑계로 더운 여름방학에 혁혁대며 우암 송시열 사당이 있는 계족산 일대를 헤맨 기억도 새롭다.

《삼국지》와 《유정》은 중학시절의 베스트북

그렇게, 늘면서 공부는 대충대충했지만 그렇다고 책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집에 있던 책은 모조리 사라지고 책을 볼 환경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책을 샀고 또 빌려가면서 봤다. 다행히 우리 가게 앞에, 머리칼이 하얗고 깨끗하게 생긴 할아버지 내외가 지금의 포장

마차 같은 것으로 노점 서점을 만들어 피난지에서 나오던 이런저런 신간들을 팔았다. 나는 거기서 책을 꽤 많이 사서 봤다. 《오성과 한음》에서는 짓곳은 친구들의 우정이 흥겨웠고 김동리, 황순원·허윤석 세 분이 번역한 《삼국지》에는 아주 빠져 며칠 동안 잠도 잊은 채 읽었다. 그후 여러 판본의 《삼국지》들 중에,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때의 그 《삼국지》가 가장 흥미진진했던 것은 그것이 한창때인 소년 시절에 본 때문일 것이다. 《삼국지》에 이어 친구한테 《수호지》와 《서유기》도 빌려봤는데, 재미는 역시 《삼국지》만은 못했다. 김용제(金龍濟) 것이지 싶은 《방랑시인 김삿갓》도 이즈음에 봤는데 “스무나무 아래 서러운 객이 망할놈의 동네에서 선밥을 먹었도다(二十樹下三十客 四十村家五十食)”의 희시(戲詩)가 지금도 한문으로 기억될 정도로 익살맞았고 “학생은 열도 안 되는데 선생은 오지 않았구나(學生諸未十 先生來不調)”란 시를 보고 혼자서 짙짙대던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내 깎은 한자를 제법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1학년 때 한 친구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영어과목의 김태현 선생(경성세대 출신으로 후에 프로기사가 됐다)이 어느날 기분이 울적해지셨는지 교과서를 덮고는 무슨 한시를 우리 1학년짜리 앞에서 외우시다가 중간에서 잊어버리자 뒷줄의 한 친구가 그 뒤를 계속 읊어대고 있었다. 그 친구가 현재 성균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군이었는데, 그때의 시가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것을 후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중3 때 인텔리풍의 한문 선생님이 가르친 대목 중 “복숭아와 오얏꽃은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저절로 지름길이 열린다(桃李不言 下自成蹊)”는 구절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두고두고 오래 남아, 내 회갑이 되던 두해 전 후배들이 내게 호를 하나 지으라고 권했을 때 이 구절을 이용해 만들어볼까 하는 궁리도 났었다.

이광수의 여러 소설들도 중학생 시절에 봤는데,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끌었던 것은 《유정》이었다. 바이칼 호수 같은 시베리아의 이국 취향이 넘치는 데다 친구 딸과의 애틋한 사랑이 어린 나의 내면을 무척 낭만적인 곳으로 이끌었던 탓일 것이다. 아내도 나와 비슷했는지 이광수의 작품이라면 이 소설만 아름답게 기억한다고 했다. 김내성의 5부작 《청춘극장》도 이 비슷한 정도로 머리에 오래 남는데, 도시적인 신여성 '오유경' 과 전통적인 부덕의 '허운옥' 이란 두 여주인공의 이름이 갖는 대조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심훈의 《상록수》며 박계주의 《순애보》 같은 소설들도 이즈음 흥미롭게 본 소설들이었다. 원에서 환으로 화폐개혁을 하던 중3 때였는지 대본점에서 이기영의 《인간수업》을 빌려봤는데, 처음에는 재미있던 이 소설이 뒤에 가서는 미리 짜인 각본대로 줄거리가 옮겨간다는 불만이 어린 소견에도 들어 마땅찮아 했던 기억이 난다. 이 작가가 월북한 카프계열이었다는 것은 물론 후에 알았다.

문학소년들의 등용문 《학원》

이렇게 성인소설들을 읽고 소년다운 감동에 젖었다 하더라도, 내 중학 시절의 가장 큰 독서는 잡지 《학원》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소학생》같은 잡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던 시절, 그리고 《새벗》에서는 졸업한 나이여서 내게 합당한 잡지가 있었으면 하는 참에 예의 할아버지 서점에서 《학원》이란 표제의 잡지를 처음 봤다. 나는 가슴이 뭉 정도 흥분해서 당장 그 잡지를 샀고 내쳐 그걸 읽어왔다. 이번에 확인한 결과 이 잡지가 창간된 것이 1952년 11월이었으니 내가 중2 때였다. 피난수도였던 부산에서 간행된 이 잡지는 당장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후에 찾아보니 그 어렵고 가난한 전시중에도 발행 부수가 10만에 이르렀고 학원사는 그 수익금으로 '학원장학생'을 선발해서 전국의 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앞에 소개한 최창규군이 그 수혜자였다. 나 역시 당연히 이 잡지를 꼬박꼬박 샀고, 사서 읽었고, 읽고서 모았다. 김성환의 만화 <꺼풀이와 장달이>며 조훈파의 이른바 명랑소설들 등 여기에 수록된 모든 것들을 물론 빠짐없이 읽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가운데도 내게 가장 관심이 갔던 난은 '학원 문단', 그것도 '시단'이었다.

지금 내 앞에는 낡은 책 한권이 놓여 있는데, 단기 4294년(그러니까 1961년)에 나온 《바람, 기(旗)를 올리다》라는 '학생시 333선집'이다. 10년 동안의 '학원 문단'에 수록된 작품들을 뽑아 엮은 책인데, 그 명단에는 오늘의 우리 시단에서 활약하는 60대 초반 이후의 시인들이 술하게 끼어 있다. 후에 나의 친구로 아주 가까이 사귀게 되는 황동규와 마중기를 비롯해서 이제하, 유경환, 문충성, 정진규, 이승훈, 박의상 등등이 학원문단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 난은 당시 수많은 문학소년들의 등용문이었고 60년대 우리 시단의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이었다. 이 시절 내 독서편력의 수원지가 된 것은 아버님이 운영하던 생과자집 가게 앞에 있던 노점서점이었다. 김동리·황순원·허유석 선생이 번역한 《삼국지》를 산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사진은 필자의 대전중학교 3학년 시절 모습.

거대한 수자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잡지가 우리 현대 잡지의 역사에서나 문단의 역사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학원》의 세례를 받은 우리 또래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종합 교양지가 없다는 것은, 혹 그 비슷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학원》만큼 사랑과 기대를 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시대가 변한 탓으로 여기면서도 참 쓸쓸한 일이었다 싶다.

짧았던 '시인' 시절

여기서 좀 낮간지러운 고백을, 나로서는 처음으로 고백해야겠다. 근 30년 전이었던지 시인 고 은씨가 문득 내게 "당신 고등학생 때 시를 내가 봤지"라며 장난기 가득한 말을 걸어와 내가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는 분명 《바람, 기를 올리다》의 그 학생시집에서 내 이름을 찾아냈을 것이다. '학원 문단'을 꼬박꼬박 읽고 쟁쟁한 학생 시인들을 멀리서 지면으로만 익히며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로 여기며 나 스스로 시를 써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에서 조용한 모범생으로 바뀌는 고등학생이 된 후 나도 뒤늦게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야(靜夜)>라는, 치졸한 감상으로 얼룩진 시 한편을 투고했더랬는데, 김용호 선생이 그걸 입선작으로 뽑아 실어줬다. 중학 3학년 때 처음 나온 교지 《청람(靑藍)》이나 고등학교 교지 《대능(大稜)》에도 지금은 기억되지도 않는 그 비슷한 글이 실렸지만 밖으로 내 글이 활자화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쨌든 그 시 덕분에 고3 때는 학생 시인 품을 잡아 또래의 문학소년들과 공중 앞에서 시 낭독회도 갖고 지방지에 발표도 했던 것 같다. 그 한두 해가 나의 짧디짧은, 그리고 불품없이 유일한, '시인' 시절이었다. ●